

떠오르는 STARTUP (주)선아리

폐현수막·자투리 원단 재활용...‘착한 소비’ 전파

‘별별동구 프로젝트’ 참여 등 친환경 실천 앞장
도심 빈집 리모델링해 공유공간·편집숍 운영
리사이클링 제품 판매...자원순환 문화 확산

기후위기 대응이 산업계 전반의 화두인 시대. 버려지는 현수막과 원단 등을 재활용해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기업이 있다.

광주 동구 지산동에 위치한 (주)선아리(대표 남혜선)는 재활용 생활 소품을 제작, 판매하며 자원 순환과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남혜선 대표(44)는 대학 졸업 후 광주의 한 종합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며 청소년, 취약계층의 자립을 위해 발 벗고 뛰었다. 하지만 그는 매일 끝없이 쌓이는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정작 본인의 아이들과 같이 있는 시간을 보내기 어려워 회의를 느꼈다. 고민 끝에 사회에 보탬이 되면서도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창업 전선에 눈을 돌렸다.

남 대표는 2022년 퇴사 직후 광주 동구청이 주관한 창업 프로그램 참여를 계기로 사업 모델을 구체화했다. 이듬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관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에 선정돼 5월 광주 동구 동명동에서 디자인 제조·유통업체 (주)선아리를 만들었다.

남 대표는 “사회복지사 시절 저소득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자활 사업’을 담당해 두부·떡 제조업체, 광고 회사, 청소 세탁업체, 카페 등 다양한 업체를 만들었다”며 “이러한 창업 경험을 바탕으로 나만의 회사를 만들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20여년간 사회복지사로 활동하면서 맺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 손수건·리플렛을 제작해 수익을 창출했고,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의 행사에 적극 참여해 감각적인 물품 배너·테이블보 디자인을 선보여 호응을 얻었다.

또 지난해 9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사회적경제박람회에서 120여개의 사회적경제 기업 상품과 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기획을 담당하며 경험을 쌓았다.

직원 수는 대표 포함 4명이지만 개인 자율성을 존중하며 경계가 아닌 협력적인 분위기다. 특히 40년 이상 명품 옷 수선을 전문적으로 해온 시니어를 채용, 서로의 자존감을 높이며 리본(Re-Born) 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선아리는 2023년부터 매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동구 주관 ‘별별동구 사회혁신 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재활용 가능성과 환경의 중요성을 시민에

게 알리기 위해 폐현수막, 소방복, 짜투리 원단 등 버려지는 자원을 활용해 예코백, 파우치, 열쇠고리로 재탄생된 소품을 선보이고 있다.

남 대표는 “이러한 과정은 단순 물건을 만드는 것을 넘어, 환경오염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디자인 상품으로 가치를 확장한다”며 “소비자에게는 ‘환경을 지키는 소비’라는 선택지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선아리는 행복한쓰임, (주)좋은날과 와 지난해 지산동의 한 빈집을 리모델링해 디자인에서 제조·인쇄·유통까지 이어지는 통합 디자인 공유 공간을 만들었다.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 동구 산수동 농장다리 인근 푸른길에서 ‘RE:ground 마켓’을 열고 이 공간에서 생산된 리사이클링(recycling) 제품, 패브릭 제품, 생활 잡화 등을 지역민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아울러 지역 디자이너, 수공예 작가와 협업한 친환경 편집숍 ‘아리홈’(arihome)을 운영하며 친환경 소비를 실천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다. 이곳은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진 예코백, 앞치마, 열쇠고리, 손수건 등 동네 캐릭터와 지역 이야기를 활용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20~30대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선아리는 지난 2월 동구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업체로 선정돼 카드 지갑·스트랩 세트, 미니 친환경 예코백을 답례품으로 제공 중이다.

찾아가는 시민 체험프로그램도 꾸준히 갖고 있다. 남 대표는 행복재활원보호작업장과 늘푸른지역아동센터, 학동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친환경 상품을 만들며 환경의 소중함을 알렸다.

또 올해 다양한 원단과 부자재를 활용한 예코백, 파우치, 커튼, 앞치마 등 수공예 장인을 돕는 ‘라이프 스타일 패브릭 디자이너’ 민간자격증(1~3급)을 발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

남혜선 대표는 “ESG 가치를 반영한 맞춤형 브랜드 상품을 제작하고, 캠페인·행사·전시에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홍보물과 전시 기획을 제공하고 있다”며 “지역 친환경 사회적 기업과 협업해 소재 확보부터 디자인, 생산 전 과정을 함께 수행하며, 고품질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남혜선 대표



‘RE:ground 마켓’ 현장



리사이클링 판매 제품들



전남개발공사, 영암 삼포지구 ‘신재생에너지 허브’ 조성

한전KDN·MC에너지 업무협약

전남형 분산전력 모델 구축

전남개발공사가 영암 삼포지구를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기 위한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생태계 구축 사업에 나섰다.

전남개발공사는 한전KDN, MC에너지와 함께 ‘영암 삼포지구 신재생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영암 삼포지구는 삼포리 일원 423만㎡(약 128만평) 부지에 국제자동차경주장을 중심으로 관광·레저·산업·에너지 기능이 결합된 융복합 미래첨단도시로 개발 중이다.

2028년 완공을 목표로 단계별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은 이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본격 도입해 ‘에너지 자립형 도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 절차로 평가된다.

협약에 따라 전남개발공사는 사업시행자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구축을 위한 부지 개발과 인허가 지원, 중앙정부 및 유관기관 공모사업 대응을 맡는다.



전남개발공사는 한전KDN, MC에너지와 함께 ‘영암 삼포지구 신재생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전KDN은 에너지ICT 전문기관으로서 EMS(에너지관리시스템), VPP(가상발전소) 등 스마트 전력운영 기술과 On-Off Site PPA 실증기술을 적용해 효율적 전력거래체계를 구현한다. MC에너지는 공동시행자로서 에너지 인프라 구축 경험을 토대로 기술타당성 검토, 사업추진 실무, 현장관리 등을 담당한다.

이번 협약은 단순 발전소 건설을 넘어, 태양광·ESS(에너지저장시스템)·ICT 기술을 결합한 분산형 전력생산 구조를 도입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최근 삼포지구 인근 해남 솔라시도에 OpenAI

데이터센터와 국가컴퓨팅센터 유치에 가시화되면서, 대규모 전력수요를 감당할 안정적 에너지 공급 기반 확보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삼포지구는 이러한 전력 수요를 지원할 ‘지속 가능한 지역형 전력 허브’로 주목받고 있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삼포지구는 전남의 에너지 대전환 정책이 실제 산업으로 구현되는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며 “전남형 신재생에너지 융합도시의 대표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켄텍, 에너지 전환·탄소중립 실현 총력

한국에너지공단과 맞손...연구·인력 양성 협력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은 최근 한국에너지공단과 ‘에너지전환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정책·연구·인력양성 등 에너지 분야 전반에서 협력체계를 구축,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에너지 전환·탄소중립 관련 공동 연구, 전문 인력 양성과 교육 프로그램, 정책·기술 자문 및 정보교류, 국제협력과 홍보사업 등도 함께 한다.

또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구체적 사업과제를 공동 발굴하고, 지역과 에너지 산업 현장에서 실증 가능한 협력모델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박진호 켄텍 총장직무대행은 “에너지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산, 탄소중립 실현은 시대적 사명이다”며 “한국에너지공단과의 협력을 통해 대학이 할 수 있는 인력양성과 실증연구의 역할을 다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은 최근 한국에너지공단과 ‘에너지전환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